

초속 40m 강풍, 나무 뿌리째 뽑힐 위력

태풍 '솔릭' 상륙 400~500mm 폭우... 2010년 사망 6명·1700억 피해 '곤파스'와 비슷

제19호 태풍 '솔릭'(SOULIK)은 강한 중형급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나무가 쓰러지고 뿌리째 뽑히는 파괴력을 동반할 것으로 점쳐진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강풍 반경은 380km에 달하고 중심기압은 950hPa(엑토파스칼)이다. 태풍 영향 반경 내에서 가장 바람이 센 곳의 풍속은 초속 43m(시속 155km)에 달한다. '솔릭'은 마이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전설 속의 족장이란 뜻이다.

솔릭의 경로와 가까운 해안과 산지에서는 초속 40m(시속 144km), 그 밖의 지역에서는 초속 20~30m(시속 72~108km) 이상 매우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전체가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에 매우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된다.

'보퍼트 풍력 계급'에 따르면 초속 24.5~28.4m에서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가옥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초속 32.7m 이상이면 바다가 물결폭과 물보라로 가득 차 지적을 분간할 수 없게 된다. 태풍에 동반된 많은 양의 수증기가 유입되고 지형적 영향까지 더해지는 전남지역을 포함한 남해안, 지리산 부근,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총 누적 강수량은 400mm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 산지는 500mm 이상을 기록할 수도 있다.

특히 '솔릭'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고 우리나라가 태풍의



22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광주지방기상청 주변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태풍 솔릭에 대비해 급경사지에 방수포를 씌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위험 반원'(동쪽)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된다.

연평균(1981~2010년 평균) 25.6개 발생하는 태풍 가운데 지금까지 '솔릭'과 가장 비슷했던 태풍은 2010년 8월 말 발생해 9월 초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던 제7호 태풍 '곤파스'다.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곤파스'가 남긴 인명피해는 사망 6명, 부상 11명 등 총 17명이다. 재산피해는 1761억원에 달했다. 사유시설 피해가 1256억원, 공공시설 피해가 505억 원이었다.

당시 '곤파스'는 서해를 통해 북상해 경기 북부를 통과했다. 상륙 시점에 경기 북

부에는 시간당 60mm 이상 폭우가 내렸다.

이 태풍으로 인한 총 강수량은 제주(어리목) 241mm, 인천(대연평) 215.5mm, 지리산(중산리) 189.0mm 등이었다.

'곤파스'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신안군(홍도)에서 초속 52.4m, 서울에서 초속 21.6m로 측정됐다. /김현영 기자 young@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8 해질 19:12 달뜨기 17:17 달지기 02:46

처서(處暑)와 함께 온 태풍

태풍 영향으로 하루종일 비오고 강한 바람 불겠다.

광주	비	26/30	보성	비	24/27	인천	☁	충청	☁	강릉	☁
목포	비	26/29	순천	비	26/29	대전	☁	청주	☁	독도	☁
여수	비	26/29	영광	비	26/29	대구	☁	부산	☁		
나주	비	25/29	진도	비	25/28	전주	☁	제주	☁		
완도	비	26/28	전주	비	27/30						
구례	비	25/28	군산	비	25/30						
강진	비	25/28	남원	비	25/29						
해남	비	25/29	흑산도	비	25/28						
장성	비	25/2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3.0~6.0	남동~남	3.0~6.0
남부	면바다	북~북동	5.0~8.0	남동~남	5.0~8.0
남해	앞바다	동~남동	3.0~6.0	남~남서	2.0~4.0
	면바다(동)	동~남동	5.0~8.0	남~남서	3.0~5.0
서부	면바다(서)	남동~남	5.0~9.0	남~남서	3.0~6.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59	17:47	00:19	12:08
여수	01:33		07:10	
	13:16		20:04	

◇ 주간 날씨

24(금)	25(토)	26(일)	27(월)	28(화)	29(수)	30(목)
☁	☁	☁	☁	☁	☁	☁
26/31	24/33	25/32	25/30	25/30	25/33	25/33

◇ 생활지수

- 위험: 식중독
- 보통: 지의선
- 좋음: 미세먼지

제2순환도로 수사 6개월 '부실'

고질적 비리 고리 못찾고 뇌물 준 업자만 檢 송치 그쳐

광주 제2순환도로 사업권을 대가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업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하지만, 6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온 경찰이 담당 간부 공무원이 복속까지 끊은 사건임에도 순환도로 운영 과정의 불법성, 다른 공무원과 비리 연결고리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김씨와 전 광주시 간부공무원 A씨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씨는 2016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300만원씩 총 7200만원을 당시 2순환도로 업

무를 맡고 있던 공무원 A씨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A씨가 퇴직한 이후에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김씨와 A씨 사이의 차용증이 정당한 금전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김씨는 2순환도로 1구간 통행요금 징수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6년 4월 요금 징수 사업권을 따냈으며, 실제 운영은 김씨의 동생(47)이 했다.

김씨는 당시 광주시와 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업체인 맥쿼리와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잘 풀리도록 해주겠다"며 맥쿼리 관계자로부터 1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실 관계자로 일한 점을 이용, 맥쿼리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아 A씨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는 지난해 3월 '협약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당시 재구조화 협상 과정을 수사했지만, 절차상 합법적으로 이뤄져 불법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협상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유착 관계 등에서도 조사를 했지만, 이마저도 밝혀진 것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당시 광주시는 비용보존방식을 버리고 맥쿼리 입장이 반영된 투자비 보존방식으로 협상을 타결, 2000억원을 절약한 대구의 절반액인 1000여억원을 절약하는 데 그쳐 협세를 낭비한 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오늘부터 원서접수

2019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11월15일) 원서접수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원서 접수 및 변경이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생은 출신고에서 작성, 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 및 타·시도 졸업생, 기타 학력 인정자는 사·도교육청에 설치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여권용 규격 2매(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김형호 기자 khh@

학교 교실 페인트 '중금속 범벅'

광주 초교 30곳·전남 어린이집 15곳 기준치 초과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어린이집 교실 등 45곳에서 기준치가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등) 1만2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광주는 30곳, 전남은 15 곳이 적발됐다.

광주시 북구 소재 A유치원 교실에 칠해진 도료에서는 기준치(600mg/kg 이하)의 114배가 넘는 납 6만8450mg이 검출됐으며 북구의 B초등학교 교실에서도 기준치의 93배인 납 5만6100mg이 나왔다.

목포 C초등학교 교실에서는 비소(기준치 25mg/kg 이하)가 27.59mg 검출되기도 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세계작업치료사연맹 한국작업치료교육 인증평가

광주여대 작업치료학과 최우수 교육기관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작업치료학과(학과장 한상우)가 세계작업치료사연맹(WFOT) 한국작업치료교육 인증평가에서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WFOT의 교육재인증도 함께 받았다.

광주여대 작업치료학과는 2005년 개설 후 2011년 호남지역 최초로 WFOT 교육인증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에 WFOT 교육재인증과 올해 4년제 대학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한국작업치료교육

인증 심사에서 최우수 판정을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두 기관의 재인증 및 인증을 동시에 획득한 대학은 작업치료학과가 설치된 모든 대학 중 광주여대가 최초이며 유일하다.

광주여대는 기초교육 내실화와 철저한 학생지도는 물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100여개 병원과 산학협약을 체결, 임상실습교육(6개월 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NAVER** 광주전남수목장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無덤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8-3(4층)
☎(062)412-2800